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현석¹ · 이영선² · 하정철³

¹³계명대학교 통계학과 · ²넷블루

접수 2011년 1월 25일, 수정 2011년 3월 11일, 게재확정 2011년 3월 20일

요약

대학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취업강좌 개설, 모의면접, 각종 어학 모의고사 실시 등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학생 스스로도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외국어 시험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정도,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가 높았으며,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졌다.

주요용어: 구조방정식, 요인분석, 취업스트레스.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9세 실업률은 7.8%로 전체 평균 실업률 3.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경제성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들의 힘든 여정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전체실업률과 20 29세 실업률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전체 | 3.5 | 3.2 | 3.2 | 3.6 | 3.7 |
| 20세~29세 | 7.7 | 7.1 | 7.0 | 7.9 | 7.8 |

대졸자의 취업난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취업강좌 개설, 모의면접, 각종 어학 모의고사 실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생들도 나름대로 취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외국어시험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인턴

¹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초빙전임강사.

² (702-832)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73-13 모바일 테크노빌딩 808호, 넷블루, 연구원.

³ 교신저자: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조교수.

E-mail: jeicy@kmu.ac.kr

십', '취업특강', '취업정보제공' 등의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정도와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느끼는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 등에 대한 연구에는 남진열 (2010), 채창균과 김태기 (2009), 박기문과 이규너 (2009), 이은화와 박정희 (2009), 정태영과 이기엽 (2005), 민혜리 (2003) 등이 있다. 김민정과 조궁호 (2009), 신선행 (2010), 황성혜와 박종구 (2009), 박미경과 이현림 (2008)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고, 진로개발지원프로그램 등의 학교지원에 관한 연구로는 진미석 등 (2010)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명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정도, 학교지원정도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연구로는 Choi (2005, 2006), Jeong 등 (2004), Park (2002) 등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제시한 후, 3절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이론적 배경

스트레스는 외부의 압력에 저항해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취업스트레스는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등 취업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취업스트레스는 현대사회의 여러 조직 가운데 학교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김혜정, 2004). 황성혜와 박종구 (2009)는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였다. 2009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의 자살 충동 설문조사 보고에 의하면 대학생 60%가 자살충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취업난(20%)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해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조사되었다 (강경훈, 2009).

장재윤 등 (2007)은 대학생활자체가 전공에 몰입할수록 개인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수준이 높아지며, 또한 대학에서의 전공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졸업 후 취업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재학 중 전공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서도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것이며, 학점관리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구직활동도 비교적 일찍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채창균과 김태기 (2009)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 전공과 같이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의 교육적 지원 노력이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해외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취업준비 노력은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요행과 권혜자 (2009)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자료를 이용하여 자격의 유형과 분야, 등급별로 취업과 임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자격 미취득자에 비해서 1.7%p (남자 1.4%p, 여자 2.4%p) 높았다. 특히 국가전문자격취득자는 4.6%p, 면허형자격취득자는 7.5%p 높게 나타나 취업률에 뚜렷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의 취업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태영과 이기엽 (2005)은 학점이 대기업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채창균과 김태기 (2009)는 자격증이 취업이나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로지원실 등의 전담부서 배치,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역량강화 캠프, 취업특강, 적성검사, 모의면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다. 진미석 등 (2010)은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직업진로취업 교육, 진로체험, 진로캠프 등 대다수의 취업관련 프로그램들이 대학 내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대학의 진로개발지원이 일상적인 진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생애진로개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관심과 강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강원준 등 (2008)에서 지적한대로 청년 실업난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학교나 기관이 참여율이 높은 취업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 역량을 강화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직접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학교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참가하여 체감할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인 ‘인턴십기회제공’, ‘특강참여기회’, ‘취업정보제공’에 대한 인식 정도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학교지원에 대한 요인을 계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지원과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H_1 :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학교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H_2 :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취업준비 정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H_3 :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H_4 :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H_5 : 취업을 위한 학교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에 따라서 그림 2.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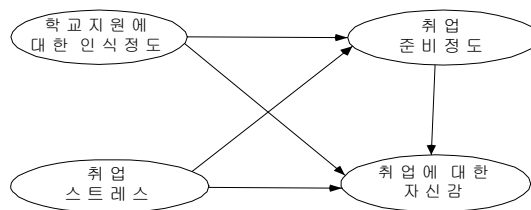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모형

3. 실증분석

3.1. 표본의 특성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준비 정도 및 자신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 항목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는 외국어능력, 학점, 자격증, 취업걱정, 사회적인식, 주변인식, 인턴십기회제공, 취업정보제공, 특강참여기회, 희망직종취업, 취업가능성, 스펙 정도에 대한 12개 항목을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조사는 2010년 7월 5일에서 8월 6일까지, 도서관 이용 학생, 계절학기 수강생과 취업특강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연대, 인문대, 경상대, 공과대, 사회대학 재학생을 할당표본추출하여 156명을 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하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한 1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인구 통계적 특성

| 변수 | 항목 | 빈도(%) |
|--------|------|----------|
| 성별 | 여자 | 84(56.0) |
| | 남자 | 66(44.0) |
| 학년 | 1학년 | 23(15.3) |
| | 2학년 | 25(16.7) |
| | 3학년 | 48(32.0) |
| | 4학년 | 54(36.0) |
| 계열 | 인문계열 | 72(48.0) |
| | 자연계열 | 78(52.0) |
| 취업스트레스 | 상 | 55(36.7) |
| | 중 | 78(52.0) |
| | 하 | 17(11.3) |
| 스펙정도 | 상 | 14(9.3) |
| | 중 | 74(49.3) |
| | 하 | 62(41.3) |

성별로는 여학생 56%, 남학생 44%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 15.3%, 2학년 16.7%, 3학년 32%, 4학년 36%로 3, 4학년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계열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이 48%, 자연계열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스트레스 정도는 상 36.7%, 중 52%, 하 11.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소,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변수를 축소, 단순화하여 의미 있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회전 시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직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법 중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고유값이 1 이상이고, 요인적재치가 0.4 이상이며 타 성분에 0.4 이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사에서는 크론바 알파 (Cronbach- α)값이 0.6 이상이 되는 요인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3.2와 같다.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결과, 12개의 변수가 4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각 요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 스트레스, 자신감, 준비정도,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정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 검사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각각 0.913, 0.871, 0.843, 0.834로 0.6이상의 값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누적분산 설명률이 79.630%로 기준인 60%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KMO값은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6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방법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변수 간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차후에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값이다. 분석결과 KMO의 표준형성 적절성 측정값이 0.742로 기준보다 크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chi^2=1030.811$, $df=66$, 유의확률이 0.000이하로 요인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

표 3.2 요인분석 결과

| 요인명 | 항목 | 요인1 | 요인 2 | 요인 3 | 요인 4 |
|---------------------------------|---------|--|--------|--------|--------|
| 스트레스 | 주변인식 | 0.929 | -0.143 | -0.003 | 0.002 |
| | 사회적인식 | 0.918 | -0.118 | -0.043 | 0.032 |
| | 취업걱정 | 0.891 | -0.138 | 0.108 | -0.059 |
| 자신감 | 스펙정도 | -0.143 | 0.868 | 0.160 | 0.232 |
| | 희망직종취업 | -0.110 | 0.866 | 0.136 | 0.011 |
| | 취업가능성 | -0.167 | 0.849 | 0.079 | 0.177 |
| 준비정도 | 외국어능력 | 0.047 | 0.070 | 0.862 | 0.208 |
| | 학점 | 0.024 | 0.169 | 0.851 | 0.154 |
| | 자격증 | -0.010 | 0.120 | 0.828 | 0.182 |
| 학교지원에 대한인식정도 | 인턴십기회제공 | -0.103 | 0.135 | 0.203 | 0.841 |
| | 특강참여기회 | 0.024 | 0.130 | 0.163 | 0.837 |
| | 취업정보제공 | 0.048 | 0.110 | 0.177 | 0.833 |
| 고유값 | | 4.059 | 2.761 | 1.404 | 1.333 |
| 누적분산 설명률 | | 33.823 | 56.829 | 68.525 | 79.630 |
| Cronbach-α | | 0.913 | 0.871 | 0.843 | 0.834 |
| Kaiser-Meyer-Olkin의 표준형성 적절성 측정 | | 0.742 | | | |
|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 $\chi^2=1030.811, df=66, p\text{-value}<0.000$ | | | |

어졌다고 할 수 있다.

변수 간의 관계와 오차부분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structural equat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직사각형은 관측변수를, 타원은 잠재변수를, e1~e12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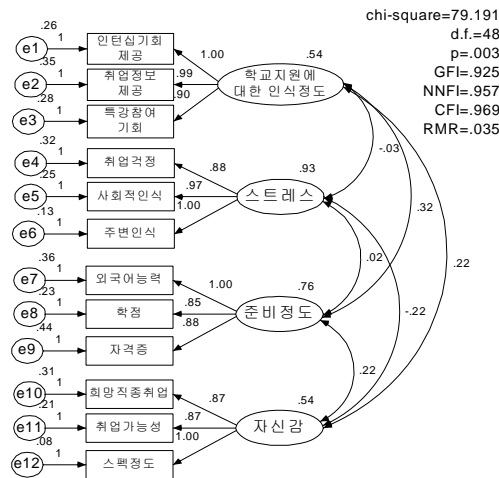


그림 3.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가설은 귀무가설이 '모형은 모집단자료에 적합하다'로 유의확률이 0.05 이상인 경우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으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카이제곱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대안으로 $Q = \chi^2/df$ 가 3이하이면 제안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

따른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만족하면 부분적으로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분석결과 카이제곱값이 79.191, 자유도가 48, 유의확률이 0.003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지만, Q (chi-square/df)값이 1.65로 3이하이므로 타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GFI=0.925, NNFI=0.957, CFI=0.969로 각각 0.9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RMR=0.035로 0.05이하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3.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한 다음 잠재변수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평가한다. 개념신뢰도는 관측변수의 내적일관성을 측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은 0.7이상을 들고 있다. 분산추출지수는 잠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0.5이상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ir 등 1998).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Fornell과 Lacker (1981)의 공식에 의해 다음과 같다.

$$\text{개념신뢰도}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text{표준화측정오차합}]}$$

$$\text{분산추출지수} = \frac{(\sum \text{표준화추정치}^2)}{[(\sum \text{표준화추정치}^2) + \text{표준화측정오차합}]}$$

각 요인에 대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성 분석

| 요인 | 측정변수 | 표준화추정치 | 표준화측정오차 | 개념신뢰도 | 분산추출지수 |
|---------------|---------|--------|---------|-------|--------|
|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정도 | 특강참여기회 | 0.780 | 0.392 | 0.835 | 0.627 |
| | 취업정보제공 | 0.774 | 0.401 | | |
| | 인턴십기회제공 | 0.821 | 0.326 | | |
| 자신감 | 희망직종취업 | 0.755 | 0.430 | 0.874 | 0.701 |
| | 취업가능성 | 0.810 | 0.344 | | |
| | 스펙정도 | 0.936 | 0.124 | | |
| 스트레스 | 주변인식 | 0.935 | 0.126 | 0.915 | 0.781 |
| | 사회적인식 | 0.883 | 0.220 | | |
| | 취업걱정 | 0.831 | 0.309 | | |
| 준비정도 | 외국어능력 | 0.822 | 0.324 | 0.848 | 0.651 |
| | 학점 | 0.840 | 0.294 | | |
| | 자격증 | 0.756 | 0.428 | | |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가 임계치 이상을 보여 신뢰성과 수렴타당성은 확보되었으므로 실증 모형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 간의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를 비교한 결과, 대각선의 분산추출지수보다 상관계수의 계수값이 모두 작아 요인 간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Fornell과 Lacker, 1981). 이에 대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3.4와 같다.

3.4.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검증

초기에 설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도는 그림 3.2와 같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

표 3.4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

| | 학교지원 | 자신감 | 스트레스 | 준비정도 |
|------|--------|--------|-------|-------|
| 학교지원 | 0.627 | | | |
| 자신감 | 0.413 | 0.701 | | |
| 스트레스 | -0.047 | -0.309 | 0.781 | |
| 준비정도 | 0.498 | 0.348 | 0.02 | 0.65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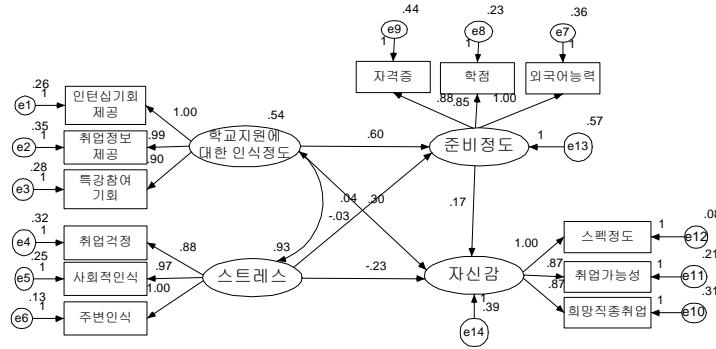


그림 3.2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표 3.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 적합도 유형 | 분석결과 | 최적모델 | 비고 |
|-------------------|------------------|-----------|---------------------------------|
| χ^2 (prob) | 79.19(0.003) | prob>0.05 | 표본의 수에 영향을 받음 |
| $Q = \chi^2 / df$ | 79.191/48 = 1.65 | 3 이하 | χ^2 / df 가 3이하이면 좋은 모델로 판단 |
| GFI | 0.925 | 1 | 0.9 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판단 |
| AGFI | 0.878 | 1 | 0.9 이상 적합 |
| NFI | 0.926 | 1 | 0.9 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판단 |
| NNFI | 0.957 | 1 | 0.9 보다 크면 적합한 모델로 판단 |
| RMR | 0.035 | 0.05이하 | 0.05~0.08 이하이면 적합함 |
| IFI | 0.969 | 1 | 0.9 이상이면 적합한 모델로 판단 |
| CFI | 0.969 | 1 |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델 |

도 분석결과는 표 3.5와 같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χ^2 이 79.191, 자유도가 48, 유의확률이 0.003로 연구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나, χ^2 을 자유도로 나눈 Q지수가 1.65로 3이하라는 기준에 만족하므로 연구모형은 모집단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GFI는 0.925, AGFI는 0.878, NFI는 0.926, NNFI는 0.957, RMR은 0.035, IFI는 0.969, CFI는 0.969로 기준에 만족하므로 좋은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H_1 부터 H_5 의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3.6과 같다.

H_1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이 준비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경로계수 값이 0.596 (t 값=5.11)이고, 유의확률은 0.000이하로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준비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많이 인지하고 있을 때 취업준비를 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_2 (스트레스가 준비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경로계수 값이 0.039 (t 값=0.514)이고, 유의확률이 0.607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준비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표 3.6 가설 채택 여부

| 가설 | 경로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t값 | p값 | 연구가설채택여부 |
|----------------|------------------|--------|-------|-------|--------|----------|
| H ₁ |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준비정도 | 0.596 | 0.117 | 5.11 | <0.000 | 채택 |
| H ₂ | 스트레스→준비정도 | 0.039 | 0.076 | 0.514 | 0.607 | 기각 |
| H ₃ | 준비정도→자신감 | 0.174 | 0.084 | 2.073 | 0.038 | 채택 |
| H ₄ | 스트레스→자신감 | -0.228 | 0.06 | -3.78 | <0.000 | 채택 |
| H ₅ |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자신감 | 0.297 | 0.102 | 2.908 | 0.004 | 채택 |

많이 받을수록 준비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즉 학습문제, 대인 관계, 사회적인 요구 등의 스트레스가 취업스트레스와 연관하여 취업준비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₃ (준비정도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경로계수 값이 0.174 (t값=2.073)이고, 유의확률이 0.038로 준비정도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어능력, 자격증 취득, 학점 등의 취업준비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₄ (스트레스가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경로계수 값이 -0.228 (t값=-3.78)이고, 유의확률은 0.000이하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위기감, 긴장감, 불안감 등을 느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₅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이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경로계수 값이 0.297 (t값=2.908)이고, 유의확률이 0.004로 학교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보화 교육, 국제화능력 교육 직업의식교육, 채용정보 제공, 취업강좌 개설, 모의면접, 각종 어학 모의고사 실시 등 학교의 지원이 많다고 느끼는 학생이 취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에 대한 준비정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학교의 지원이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학교의 취업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취업준비 정도가 높았으며, 자신감 또한 높아졌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았으며,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졌다.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데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대학 시절에 학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에게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취업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여 많은 취업기회와 취업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 수도권대학, 상위권대학, 중하위대학 등 대학 특성에 따라 학교지원 프로그램이 다르고,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구직활동 등이 약간씩 다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강경훈 (2009).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강원준, 김종인, 김정원 (2008).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 17-36.
- 김민정, 조근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 47-62.
- 김혜정 (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남진열 (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상태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 353-374.
- 민혜리 (2003). 대학졸업자 취업구조의 변화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 <교육비평>, **12**, 148-182.
- 박기문, 이규녀 (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4**, 103-127.
- 박미경, 이현립 (2008).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 239-259.
- 신선행 (2010).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10**, 663-670.
- 이요행, 권혜자 (2009).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국가자격 취득의 취업 및 임금효과. <직업교육연구>, **28**, 95-111.
- 이은화, 박정희 (2009). 남녀 대학생의 취업준비 학습실태 및 직업기초역량 교육의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2**, 141-166.
- 이승호 (2008). 참여정부의 실업관련정책 평가; 청년실업 해결을 향한 16가지 정책 제언. <도시와 빈곤>, **86**, 77-105.
- 장재윤, 신희천, 이지영 (2007). 대학에서 “전공”에 몰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가? 대학생들의 전공 몰입이 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20**, 415-435.
- 진미석, 정혜령, 이수영 (2010). 국내 4년제 대학의 진로개발지원 현황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3**, 35-152.
- 정태영, 이기엽 (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학점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 159-184.
- 채창균, 김태기 (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 89-107.
- 황성해, 박종구 (2009). 대학생 취업난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자연경관의 효과 -사바나 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4**, 85-101.
- Choi, K. (2005) Enhancing qua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6**, 781-790.
- Choi, K. (2006). An empirical study for university educational service satisfaction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7**, 279-289.
- Fornell, C. and La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 39-5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Jeong, S., Cho, K., Lee, W., Choi, Y. and Song, K. (2004)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f dental residents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 395-403.
- Park, T. (2002). Determinants of IT Usage : Test of the revised TAM.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3**, 87-96.

A study on the impact of stress on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Hyun Seok Choi¹ · Yeong Seon Lee² · Jeongcheol Ha³

¹³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²Netblue

Received 25 January 2011, revised 11 March 2011, accepted 20 March 2011

Abstract

To enhance employment rate of students, every college provides various methods, such as consulting, information provision, course and mock interview. Students also are trying to get high GPA scores, to achieve certificates and to enhance english ability for getting jobs. We analyzed the relations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college supports, students preparation for getting jobs and job-seeking stress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e found that college supports increase students preparation for getting jobs and job-seeking stress lessens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Keywords: Factor analysis, job-seeking stres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¹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² Researcher, Netblue, Mobile TP B/D #808, Bokhyeon-dong, Buk-gu, Daegu 702-832, Korea.

³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E-mail: jeicy@kmu.ac.kr